

왜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하느님이라고 하나? 아마도 대부분 독자들에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질문일 것이다. 기독교에서는 한 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느님’이라고 하면 기독교와는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믿기 때문이다. 언어학적, 신학적 이해라는 두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한글맞춤법통일안(조선어학회, 1933)에 따라 아래아(·)가 폐기되면서, 하늘의 옛 형태인 ‘하느님’을 하늘로 표기하게 되고 여기에 존칭접미사 ‘님’이 첨가되면서 하늘님이 된다. 딸님이 따님으로, 아들님이 아드님으로 발음되는 것처럼, 하늘님은 마침내 하느님으로 발음된다. 이렇게 볼 때, 언어학적으로 하느님은 본래 하늘에서 온 말로, 유일한 하나의 존재라는 의미와는 별개다. 참고로 하나의 옛 형태는 ‘하느님’이 아니라 ‘하느나님’이다. 하늘을 뜻하는 ‘하느님’은 초기 성서번역에 쓰였지만 하나를 뜻하는 ‘하느나님’이란 표기는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문법상 하나라는 숫자에 존칭접미사 ‘님’을 붙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둘님(두님), 셋님이 없는 것처럼.

또 다른 문제로 일부 기독교인들이 말하듯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구분된 ‘한 분 하나님’ 곧 유일신 개념을 담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추상명사 ‘하느님’을 고유명사화(이름 짓기)한 셈이기 때문에 유일하다는 의미의 하나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별 하나, 별 둘은 말이 되지만, 달 하나 달 둘은 어색하다. 해와 달은 하나기 때문이다. 또한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되는데, 하나는 다수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성서—특히 히브리(구약) 성서—에서 말하는 유일신 개념은 신이 하나 있다는 말이 아니고, 여러 신들 중 하나를 선택한다는 정체성 선언이라고 보아야 옳다(출 20:3; 신 6:4). 그래야 ‘한 분 하느님’이라는 표현이 말이 된다. 둘을 섬기지 않는다는 선언이다.

하나님 혹은 하느님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것은 신학자 틸리히의 말처럼 존재의 궁극적 근원(The ultimate ground of being)이며, 동양사상에서 태극을 일으키는 원천이다. 무엇이든 이름하든, 추상명사(하느님)든 고유명사(하나님)든, 이것(들)이 가리키는 것은 한 가지다. 노자의 도(道) 이해에서 볼 수 있듯이, 도란 이름 지을 수 없는, 또 이름에 갇힐 수 없는 이름 이전의 존재다. 출 3:14 에서 하느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하느님은 자신을 가리켜 ‘스스로 있는 존재’(I am who I am)로 소개한다. 따로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존재란 뜻이다. 따라서 하나님/하느님을 명칭에 따라 분리 이해해야 한다면, 신을 이름에 가두는 격이 된다. 이 책에서 ‘하느님’이라는 말을 굳이 쓰는 이유는, 절대자 신을 특정의 이름 짓기에 가두려는 것에 대한 무언의 저항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느님이라는 말이 누구에게나 친숙한 비기독교적, 비종교적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다.

왜 천국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인가? 복음서의 핵심 사상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하느님 나라’(The kingdom of God)고, 예수의 삶을 단적으로 표현하면 ‘하느님 나라 운동’이다. 이와 관련해 성서에 ‘천국’(ἡ βασιλεία τῶν οὐρανῶν, The kingdom of the heavens)이란 말이 총 32 번 쓰이는데 하나같이 마태복음에만 나온다. 잠시 생각해 보자. ‘천국(天國)’이 다른 성경에는 전혀 나오지 않고, 오직 마태복음에만 등장한다. 놀랍지 않은가? 왜 그럴까? 아마도 마태복음 저자는 ‘하느님 나라’에 담긴 하느님(God) 대신에 하늘(heavens)이란 말을 넣었을 가능성이 크다.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길 꺼리는 정통 유대교 관습에 따라 지금도 어떤 이들은 영어로 하느님을 모음 없이 G_D(God)로 표기한다. 마태복음 외에는 성서 어디에도 ‘천국’이란 말이 나오지 않는데, 그럼 왜 교회에서는 그렇게 천국을 많이 운운할까? 이미 서문에서도 밝혔듯이 교회에서 마태복음이 유난히 많이 읽혔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천국이라는 말이 던져주는 또 다른 환상에 사로잡혀, 마태복음의 ‘천국’을 자신의 꿈과 소망에 맞춰 이해했기 때문일 것이다.

사람들은 보통 하늘 나라(天國)가 땅/지상의 나라와 대조된다고 지레 짐작한다. 더 나아가 천국을 이 생과 구분되는 저 생, 곧 사후의 삶으로 비약시키고 심지어 요즘에는 ‘천국환승예배’라는

신조어(新造語)마저 만들어냈다. 하늘이 땅과 비교되는 것이야 십분 이해할 수 있지만, 이는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일 뿐, 문자적으로 하늘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우주와 자연에서 하늘은 저 상공 위에 있지만, 상징적 의미에서 하늘은 거리상의 위치라기 보다는 우주의 근본을 가리킨다. 고대인의 언어와 사상에서 하늘은 하느님 자리다. 우주의 근본으로서 또 하느님 자리로서의 하늘은 내 안에 있기도 하고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하다(눅 17:21; 도마복음, logion 3).

마태복음에서 하늘 나라가 말하는 바는 하늘님/하느님이 통치하는 세상이다. 결국 하느님 나라다. 그 상대 개념은 땅의 나라 곧 이 세상의 지배체제를 염두에 둔 말이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을 가리킨다. 하늘과 땅이 내포하는 뜻이 저 세상과 이 세상처럼 시간의 흐름에 차이를 둔 사후세계(life after death)를 말한단기 보다는, 같은 시간 대에서 누구의 나라를 세우는가에 궁극적 관심이 있다. 성서에서 하느님과 맘몬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here and now— 삶의 자세를 묻는 말이다. 네 하느님이 누구냐? 정체성에 관한 물음이고, 가치관을 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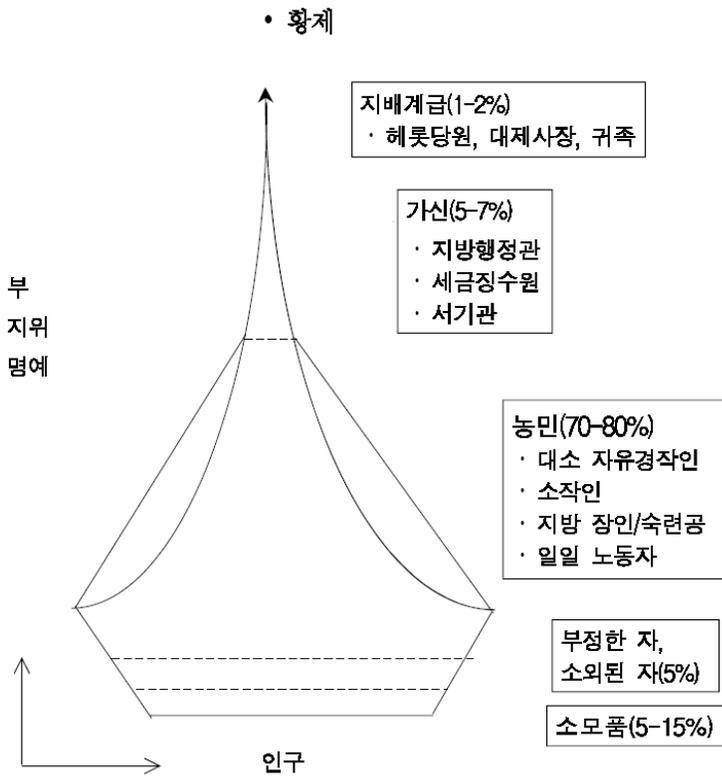
그럼 왜 이런 개념이 소개되었을까? 사람들이 하느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꿈꿨을 것이다. 동시에 이 표현 이면에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다스리는 나라(통치)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내포하고 있다. 이 세상이 약속하는 복음이란 소수만을 위한 지배체제 가치관이다. 대다수 농민, 군중들은 헐벗고 굶주린 가운데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서 신음할 뿐이었다. 따라서 일반 군중들은 새로운 가치관, 복음을 요하게 되고, 그 꿈과 소망을 담은 말이 하느님 나라다. 당시 사회적 상황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예수님 당시 그리스-로마 배경을 간추려 보자.

그리스-로마 배경

신약성서의 배경이 되는 고대 근동의 사회구조는 가족을 기본단위로 한다. 그리고 가족과 가족의 상호관계를 통해 보다 큰 공동체가 형성된다. 결혼을 통해 가족이 커지기도 하며, 혹은 고용관계 등 계약을 통해 가상적 가족(fictive family)이 생기기도 한다. 여기에 후견인-의뢰인 제도(patron-client)가 생겨나고, 서로 다른 사회적 위치의 사람들이 이해관계로 연결된다. 힘 없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을 배경으로 앞으로 나간다. 이렇게 신약성서의 배경이 되는 로마제국의 사회제도는 혈통관계를 기초로 정치, 경제, 종교 전반에 걸쳐 하나의 촘촘한 그물망을 형성하고 그 안에서 긴밀하고도 엄격한 통치와 감시, 통제가 이루어진다.

혈통(kinship)이 연대감, 소속감을 부추기는 기본질서라면, 정치(politics)는 힘과 권력을 바탕으로 모든 방면에서 사회적 규범을 형성한다. 이 기본적인 틀 위에 경제(economics)는 부와 명예를 약속하고, 종교(religion)는 이 모든 질서에 신성한 존재 가치/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군대는 본래 국가를 수호한다는 신성한 의무를 담당하지만, 당시 사회에서 보다 실질적 이유는 이런 지배체제를 보다 강력하게 수행하기 위한 경찰수단이었다. 고금을 통해 독재체제 하에서 군대는 늘 지배자의 시너 노릇을 충실히 해왔다. 이런 구조 속에서 특히 귀족은 사회의 기본질서 중 핵심에 위치하여 모든 정책과 결정을 관장한다.

예수님 당시 사회구조를 보자. 고대 농경사회의 사회구조를 분석한 렌스키(Lenski, *Power and Privilege*, 1966, pp. 243-296)에 의하면, 초기 농경사회는 자급자족 단계로 주로 개개인의 노동력에 의존했다. 수요가 제한된 까닭이다. 이후 점차 발달된 농경사회로 넘어가면서, 철기 사용으로 인해 작업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잉여자산(surplus)이 생기면서 빈부의 격차가 점점 커지게 된다. 당연히 모든 부와 지위와 명예는 소수 귀족 및 지배계급에 편중하다 보니 그 분배에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아래 도표에서 보듯, 대다수 사람들은 부와 명예와는 거리가 멀다



1세기 팔레스타인 사회구조

당시 지배계급은 전체 인구의 약 1-2% 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전체 부(토지)의 50-60%를 점령한다. 이들은 자신의 재산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가신들(retainers)을 두어 운영토록 하는데 가신들은 전체 인구의 약 5-7% 정도를 이룬다. 이들은 경제, 군사, 종교 전반에 걸쳐 종사하는 관료들로 이들은 또한 귀족들의 소유로 된 도시 밖의 토지를 관리하며, 수확물 징수를 담당한다. 이들 가신들은 귀족들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한편, 귀족들과 대다수 농민들 사이에서 매개체, 곧 브로커(broker) 역할도 했다. 이럴 때 가신들은 귀족 등 지배자들을 대신하기에 일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일종의 후견인 역할이다. 하지만 당시 후견인-의뢰인(patron-client) 제도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피지배계급을 보다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제도였기 때문에 다스림의 원칙에 바탕을 두고, 그들의 지배이데올로기를 반영한다. 가신들을 보는 일반 농민들의 눈이 굵지 못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상인(5%), 장인(匠人, 3-7%), 농민(peasants, 70-80%)은 모두 넓은 의미에서 농민들에 속한다. 인구의 대다수를 이루는 농민들은 부과된 세금을 통해 국가와 지배계급을 돕는 실질적 계층이지만, 힘없고 순진한 백성들로 늘 약탈의 대상이었다. 이들 보다 아래에 있는 계급인 천민(5%)들은 ‘부정한 자,’ ‘소외된 자’로 낙인 찍힌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소모품(expendables, 5-15%)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하찮은 범법자, 거지, 떠돌이 일꾼 등으로 자선과 동냥에 의존해 생활하는 자들로 누가복음의 거지 나사로와 같은 존재들이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일정한 일자리(직업)가 있는 농민이나 장인들 후손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유업을 받지 못하거나, 세금과 빚더미로 경작지를 잃게 되면 하루 아침에 일일 노동자로 전락하게 되고 굶기야는 천민, 소모품

취급을 받게 된다. 마침내 이들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란 불법/범법행위를 통해 연명하는 것 그리고 천지개벽의 농민항쟁 외에는 달리 뵈족한 수가 없었다. 예수님 당시에 크고 작은 민란, 반란과 항쟁이 끊임 없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당시 사회적 상황이 얼마나 열악했는지를 잘 설명한다.

당시 세금은 크게 토지세와 인두세로 나뉜다. 땅과 사람 모두 로마제국의 소유물이라는 인식이다. 영어로 인구조사를 뜻하는 센서스(census)는 헬라이어 켄소스(κῆνσος, poll-tax)에서 유래한다(막 12:14; 마 17:25; 22:17, 19). 따라서 인구조사를 한다 함은 국가 혹은 지배자들 입장에서 볼 때 일종의 재고조사에 해당한다. 당시 갈릴리 지역 농민들이 당면한 세금은 최소한 3 종류로, 공세, 조세, 성전세 등이다. 공세는 로마황제에게 바치는 것으로 수입의 약 15%에 해당한다. 조세는 분봉왕 헤롯에게 바치는 분량으로 수입의 20-35%를 차지 한다. 그 외 예루살렘 성전에 바치는 십일조 등 각종 헌물이 약 10-20%를 차지하는데, 농민들에게 있어 로마에 바치는 세금을 빼먹을 수는 없고 유일한 탈세의 분량은 성전세가 되며 이를 지키지 못할 때 ‘부정한 자,’ ‘죄인’ 취급을 받게 된다.

이렇듯 많게는 수입의 70%까지 세금으로 바쳐야 되는 열악한 사회환경 속에서도 농민들의 관심은 “얼마나 빼앗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남았는가”다. 다음 해 농사가 관건이고 이를 위해 20%는 남겨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최저 생계유지를 하더라도 다음 해 농사를 지을 수 있다면, 또 내일을 기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사회상황은 그렇지 못했다. 공동생활에 참여한다 함은 당시 사회의 기본질서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일상 생활비—‘품위 유지비’—가 늘어나게 됨을 의미한다. 모자라는 금액은 빚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 저장으로 잡히는 것이 토지다. 농민들에게 마지막 남은 유일한 재산이고 내일을 위해 움켜쥔 희망이다. 그런데 당시 이자율이 20%에 달했다고 하니 저당물 상실(foreclosure)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자작농이 자신의 저당물(토지)을 잃고 소작인으로 전락하여 이제는 남의 소유가 되어버린 땅에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면 그나마 나은 형편이다(막 12:1-12).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일일 노동자가 되고(마 20:1-16), 최악에는 소모품(expendables)으로 전락하게 된다.

주기도문에 있는 빛 탕감(마 6:12; 눅 11:4)은 이런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막연히 (죄)악으로부터 멀리함이라기 보다는, 구체적으로 ‘악한 자’(the evil one)로부터 보호를 요청하는 울부짖음이다. 마찬가지로 “송사하는 사람과 화해”(마 5:25-26; 눅 12:58-59)하라는 가르침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농민들에게 그나마 이런 타협책이 법정에서 서기관들을 만나 모든 것을 잃는 것 보다 현실적으로 빠른 해결책이기 때문이다.

예수의 공생애를 전후로 유대와 갈릴리에서만 최소한 4 차례의 큰 반란이 있었는데, 모두가 정부/통치자가 바뀔 때마다 일어나는 현상이었다(리처드 홀슬리, 『예수와 제국』, 67-97). 첫째는 기원전 40년 헤롯대왕(37-4 BCE)이 즉위하기 전이며, 둘째는 기원전 4년 헤롯 대왕 사후 여기 저기서 대규모 반란이 일어났다. 셋째로 서기 66년 예루살렘 항쟁 시, 로마 장관 티투스는 반란군을 진압할 목적으로 하루에 오백 명씩 도망자를 십자가형에 처하기를 성밖에 “더 이상 십자가가 남지 않을 정도까지” 했다고 전한다(Jewish War, 5.11.1-2). 마지막으로 서기 132-35년의 바코흐바 항쟁을 들 수 있다. 이 일련의 민란, 항쟁은 로마의 살인적 지배체제 하에서 농민들이 얼마나 간절히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나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다.

결론적으로 하느님의 나라(The kingdom of God)는 로마 제국에 상반되는 개념으로 대단히 현실 참여적이고 정치적인 언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당시 지배체제의 상류계급 위주의 후견인-의뢰인 브로커 체제에서 오히려 예수(브로커)는 농민들(의뢰인)에게 하느님(후견인)의 복음을

전했다. 당시의 문화와 언어에서 볼 때, 하느님 나라 운동은 로마의 지배체제 구조를 염두에 둔 새로운 “가상의 가족(fictive family)”을 일으킨 대항 운동으로서,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가 말한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라고 한 말은 이런 사회적 상황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혈연, 지연 등 후견인-의뢰인 브로커 체제 하에서 경계선을 넘어 더불어 살기, 상부상조하는 공동체를 염두에 둔 새로운 정치적 입장이다. 이렇게 ‘하느님 나라’는 예수의 입을 통해 처음 소개된다.

생각해 보기

1. ‘천국’의 개념을 ‘하느님 나라’로 이해할 때, 내 신앙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나?
2. 공동 생활을 위해 기본적으로 드는 비용을 ‘품위 유지비’라 하고, 내가 쓰는 비용이 수입의 얼마를 차지하나?